

Bayer, 화학 · 폴리머 사업 분사!

기초 · 특수 · 정밀화학에 폴리머 분리 ... 제약사업에 역량 집중

Bayer(대표 베르더 베닝)은 화학과 일부 폴리머 부문을 바이엘에서 분리해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늦어도 2005년 초반까지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이라 밝혔다.

분리조치 이후 Bayer의 사업구조는 Bayer Health Care, Bayer CropScience, 그리고 Bayer MaterialScience로 재편되며 Bayer 폴리머 경영위원회 회원이자 아시아지역 총책임자인 악셀 클라우스 하이트만이 대표를 맡게 된다.

Bayer은 화학분야에 특화된 독립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시장의 요구에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한편, 생산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설립될 회사는 매출액 56억유로에 임직원 2만명으로 구성되며 기초화학, 특수화학, 정밀화학 그리고 폴리머 분야에 걸쳐 약 5000개의 제품군을 가지고 세계 20여개국에 판매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농약중간체, 방부제제제, 가죽, 제지 · 의류산업 관련 화학약품, 이온교환제, 무기안료, 폴리머첨가제, 고무와 고무화학제품, ABS, 그리고 반결정성 플라스틱 수지가 소속되며 특화된 어플리케이션 확장을 통한 성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ayer의 CEO 베닝은 “화학부문 분리 이후 Health Care 등 기술과 시장에서 선두적 위치에 있는 핵심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구조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혜련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1/17>